10.18219/ddmh..110.202006.201

조선 후기『史記』「貨殖列傳」주석서의 문헌적 연구

安大會*

Ⅰ. 머리말
Ⅱ.『貨殖傳註解』의 서지와 주석의 특징
Ⅲ.『古今集註新校貨殖傳』의 서지와 주석의 특징
Ⅳ. 18세기 조선학자의『화식전』주석서의 특징
Ⅴ.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 학자의『史記』「貨殖列傳」주석서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특히『貨殖傳註解』와『古今集註新校貨殖傳』2종의 주석서를 발굴하여 분석하고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18세기 이후 단행본으로 유통된「화식열전」의 주석서는 몇 종에 이른다. 그중『經史註解』의 일부인『화식전주해』와 鄭亮欽이 편찬한『고금집주신교화식전』이 단행본으로 편찬되어 다수 필사되었다. 이밖에도 漢陰이란 호를 가진 학자의 주석서가 있었고, 1796년에 正祖의 명에 따라 金履喬와 洪奭周 등이『史記選纂注』를 1차 완성하였고, 1798년에 丁若鏞이 번다한 주석을 刪正하여 개정하였다.

2종의 단행본 주석서는 기왕에 널리 이용된 주석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특징을 지녔다. 修辭學的 관점에서 텍스트를 이해하여 단락을 구분하고 문장의 서술구조와 문리와 문맥을 중시하여 창의적 주석을 단 참신한 주석서였다. 또 널리 활용되던 三家注나『史記評林』의 주석을 참조는 하되 독창적 주석을 달았고, 새로운 해석을 많이 하였다. 2종의 주석서는「화식열전」을 정확하고 흥미롭게 읽는 데 기여한 저술로서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동아시아 학계의 『사기』와 「화식열전」 주석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제어 : 貨殖傳, 『經史註解』, 『古今集註新校貨殖傳』, 鄭亮欽, 『史記選纂注』, 『史記』

Ⅰ. 머리말

이 논문은 18세기 조선 학자가 저술한『사기』「화식열전」주석서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주석서 가운데 2종의 단행본『貨殖傳』을 집중적으로 살펴서 그 서지와 내용,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화식전』은 司馬遷의 역사서『史記』列傳 69권으로 수록된「화식열전」에 주석을 달아 단행본으로 만든 저작을 가리킨다.[1)]

20세기 이전 조선의 독서계에는『사기』「화식열전」에서 독립한 단행본『화식전』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었다.[2)] 거의 모두 간행되지 않은 채 필사본으로만 轉寫되었다.『화식전』이란 이름으로 필사되어 다수 유통된 사본은 이름은 동일해도 실상은 동일한 책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저자가 저술한 주석본이 적어도 4종 이상 혼란스럽게 필사되어 유포되었다. 그중에는「화식전」白文도 끼어있다. 제목은 같아도 실제로는 내용이 다른 주석본이 다수이므로 일일이 검토해서 어떤 주석본인지를 분간해야 한다. 대표적인 2종의 주석서가『貨殖傳註解』와『古今集註新校貨殖傳』이다. 앞의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뒤의 책은 鄭亮欽의 저술이다. 저술된 시기는 모두 18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이 2종의 주석서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많은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이고, 언제 어떤 동기로 저술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며, 통용되는 주석본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연구논문 한 편 나오지 않았다.『사기』「화식열전」이 조선에서 유통된 사정을 연구한 국내외 논문이 몇 편 있으나 해당 논문에서 이 책의 존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3)]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제목이『화식

---

1)『貨殖傳』은 일반적으로는『사기』의 편목 가운데 하나로서「貨殖列傳」으로 표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에 단행본으로 다수 유통되어 대체로 '화식전'으로 쓰는 현상을 반영하여『貨殖傳』으로 표기하되,『사기』의 편목 가운데 하나로 쓸 때는「화식열전」으로 표기한다.

2) 다른 단편 저작과 함께 필사되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유통된 사본이 적지 않다.

3) 서신혜,「貨殖傳 수용의 양태와 경향」,『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31~55면; 김경호,「『史記』「貨殖列傳」의 구성과 "自然之驗"의 의미」,『사림』46, 수선사학회, 2013, 481~513면; 양중석,「조선 문인들이 본『사기』「화식열전」」,『중국문학』89,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37~55면. 서신혜의 논문 44면에서는 정약용의「跋東山子貨殖傳注」를 인용하여 정양흠의「화식열전」주석서가 나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주석서가 바로『고금집주신교화식전』임을 밝히지 않았고, 논문에서『고금집주신교화식전』을 다루지도 않아 주석서의 실물 자체를 확인하지

전』이므로 통용되는『사기』「화식열전」주석서를 초록했다고 넘겨버리기 쉬웠다.

비록 지금까지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2종의 주석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많은 수량의 사본이 입증하듯이 당시부터 많은 독자를 확보한 인기있는 주석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기』는 12本紀, 10表, 8書, 30世家, 70列傳으로 구성되어 전체 130편에 달하는 거작이다. 全作으로도 널리 읽혔고, 選本으로도 널리 읽혔다. 선본만 해도 20세기 이전 중국에서는 100종을 웃돌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수가 나타났다.[4] 조선에서는 정조가 왕명으로 펴낸『史記英選』이 대표적이다.[5] 그러나『화식전』처럼 단일 편목을 따로 독립하여 주석을 단 채로 읽은 것은「項羽本紀」가 있을 뿐이다.[6] 중국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독립되어 읽히고 주석이 달린『화식전』은 20세기 이후에나 등장한다.[7]

이처럼 18세기 조선에서『사기』「화식열전」이 단행본『화식전』으로 주석이 달리고 독립되어 널리 읽힌 현상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2종의『화식전』주석서의 서지와 내용,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려 한다. 먼저『화식전주해』를 살펴보고 이어서『고금집주신교화식전』을 살펴본 다음에『화식전』2종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맥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凌朝棟,「選讀精彩篇章傳播《史記》文化-《〈史記〉選本研究》成果要覽」,『渭南師範學院學報』35(3), 渭南師範學院, 2020, 30~34면.

5) 項羽本紀, **蕭相國世家, 留侯世家**(이상 1권), 伯夷傳, 管仲晏嬰傳, **伍子胥傳, 蘇秦傳**, 孟嘗君傳, 平原君傳(이상 2권), **信陵君傳**, 範雎傳, 樂毅傳, **屈原**傳, 張耳陳餘傳(이상 3권), **淮陰侯傳**, 酈生陸賈傳, 袁盎傳, 五王濞傳(이상 4권), **魏其侯武安侯**灌夫傳, 汲黯傳, **李將軍傳, 刺客傳, 游俠傳**(이상 5권), 滑稽傳, **貨殖傳, 太史公自序**(이상 6권)으로 총 26편을 선정하였다.

6) 국립중앙도서관에「項羽本紀」에 한글음과 현토한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본디 이 책에는 諺解가 달려 있었으나 현재는 그 첫 대목만 남아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漢書』의「項籍傳」은 1602년 公州 儒城 草外村舍에서 간행한 판본과 1607년에 경상도 永川 臨皐書院에서 重刊한 것이 현재 전한다.

7) 潘吟閣의『史記貨殖傳新詮』이 중국 商務印書館에서 1931에 출간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 책은 주석서라기보다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락별로 풀이한 해설서에 가깝다.

Ⅱ.『貨殖傳註解』의 서지와 주석의 특징

『貨殖傳註解』는 단행본으로 상당히 많이 필사되어 전한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개인이 소장한 사본이 적지 않아 적어도 십여 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거의 모두『貨殖傳』이란 이름으로 유통된 필사본이다. 그만큼 인기를 누린 주석서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명된 적이 전혀 없다.

이 책에 주해를 단 저자가 누구이고, 어느 시기에 저술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도서관의 서지항목에서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이 주석서를『經史註解』란 책에 실린「화식전」을 따로 분리하여 단행본으로 유통한 책으로 단정한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본디 실려 있던 저술의 명칭과 특징을 고려하여『貨殖傳註解』란 이름으로 부른다.

『화식전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經史註解』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경사주해』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서와 사서를 주석하고 풀이한 저술이다. 책에는 서발문이 실려 있지 않아서 책의 편찬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저자가 누구이고 어느 시기에 저술되었는지 확인할 단서가 어디에도 없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전남대도서관에 같은 책명으로 사본 3종을 소장하였고, 필자는『經史五選』이란 책명으로 사본 1종을 소장하고 있다. 4종의 이본 사이에는 글자의 出入이 적지 않으나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8)]

이 책은 상편과 중편, 하편으로 구성되었고, 상편에는「周禮 · 考工記」, 중편에는「伯夷傳」과「화식전」, 하편에는「趙皇后傳」과「漢馬第伯封禪儀記」가 실려 있다. 맨 뒤에는 부록으로「曺成王碑」가 실려 있어 모두 6편의 독립된 글을 수록한 편서이다. 상편은 경서인『주례』에서 가장 빼어나면서도 난해한 문장이라 평가받는「고공기」 주석서이다. 중편은 사마천의 역사서인『사기』열전에서 난해하면서도 독특하고 빼어난 문장이란 평을 듣는「백이전」과「화식전」을 뽑아 수록하였다. 하편은 班固의『漢書』에서「조황후전」과『후한서』의「祭祀志」에 실린 應劭의 명문「封禪儀記」를 수록하였다. 상편은 경서이고 중편과 하편은 사서로서『사기』2편,『한서』와『후한서』

8) 장서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본은 열람하여 확인했고, 전남대도서관 소장 사본은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다. 필자가 소장한『經史五選』에는 부록「조성왕비」가 빠져 있고, 眉批 전체가 탈락되어 있다.

각 1편을 수록하여 책명인 經史란 이름에 부합한다. 「조성왕비」는 당나라 고문가 韓愈의 난해한 문장으로 유명하다. 경사에 속하지 않는 문장이므로 「조성왕비」를 正編에 넣지 않고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경사주해』는 이렇게 모두 6편의 문장에 주해를 가한 주석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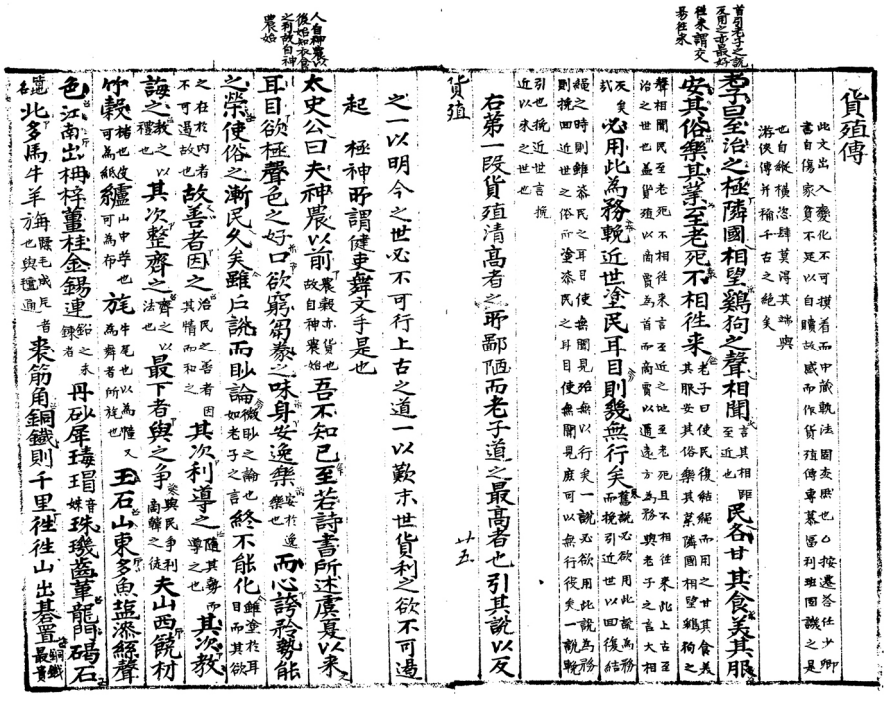
『경사주해』에 관해서는 단행본 『화식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6편의 글 대부분이 명문으로 유명하여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각각의 원전에서 본문과 주석을 필사하여 한 군데 모은 책으로 간주하기 쉽다. 하지만 주석 전체가 조선의 학자 한 명이 세심하게 단 주석서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술로 평가하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6편의 글은 모두 난해하면서도 뛰어나고 독특한 문체의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자가 각 편에 대해 상세한 주해를 달았다. 『경사주해』는 이미 나온 주석서를 참고는 하였으되 자신의 독자적 관점을 적용하여 주해를 가한 새 주석서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주석서로서 그 가치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석서로서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경사주해』지만 아쉽게도 그 저자와 저술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기 힘들다. 서발문이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저술을 언급한 문헌을 현재로서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한 명의 저자가 주해를 단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해의 방식과 관점, 태도가 동일하여 한 사람이 일관된 기준과 안목을 가지고 주석과 評批를 달았다. 주목할 점은 문장의 수사와 문리, 맥락을 중시하는 방향을 취하였고, 전체 문장을 주제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대의를 파악하는 방법을 구사한 데 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사주해』가 저술된 시기 역시 확정하기 힘들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18세기 전기로 파악하였다. 중편의 「백이전」과 「화식전」에서 三淵 金昌翕(1653~1722)의 주장을 인용한 주석이 그 근거이다. 그 주석은 『三淵集』 권35~36에 실린 「漫錄」에 실려있다. 해당 「만록」은 경자년(1720년)에 쓴 箚記로서 대체로 문집이 간행된 뒤에나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삼연집』은 김창흡의 문인 俞拓基가 1732년에 芸閣活字로 간행하였으니 『경사주해』는 적어도 1732년 이후에 저술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

『경사주해』에 실린 6편의 문장과 주해의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이 필요하다. 전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는 나중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중편에 수록된 「화식전」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貨殖傳

此文出入變化不可摸着而中藏軌法固亦歷也○按遷答任少卿書自傷家貧不足以自贖故感而作貨殖傳亦慕管仲白圭之是也自敘積怨鬱莫得其端與游俠傳并稱千古之絕文與

首引老子之說反用之亦最好往來謂交易往來

老子曰皇治之極隣國相望雞狗之聲相聞民各甘其食美其服安其俗樂其業至老死不相往來

人自神農後始知衣食之有故自神農始

言其相距至近也老子曰使民復結繩而用之甘其食美其服安其俗樂其業隣國相望雞狗之聲相聞民至老死不相往來言至近之地至老死且不相往來此上古至治之世也蓋貨殖以商賈為首而商賈以遺遠方為務與老子之言大相反矣必用此為務輒近世塗民耳目則幾無行矣

輒近世塗民耳目使無聞見殆無以行矣一說必欲用此說為務輒引近世以回後結繩之時則雖荼民之耳目使無聞見庶可以無行後矣一說輒引也稅以來近世言稅近世之俗所塗荼民之耳目使無聞見庶可以無行後矣一說輒近以來之世也

右第一段貨殖清高者之所鄙陋而老子道之最高者也引其說以反之一以明今之世必不可行上古之道一以歎末世貨利之欲不可遏起

貨殖

十五

極神所謂健吏舞文手是也

太史公曰夫神農以前吾不知已至若詩書所述虞夏以來耳目欲極聲色之好口欲窮芻豢之味身安逸樂而心誇矜勢能之榮使俗之漸民久矣雖戶說而耳論終不能化

神農以前故自神農始貨殖故善者因之其次利導之其次教誨之其次整齊之其次最下者與之爭

夫山西饒材竹榦

楮也皮可為紙

纑山中孝也可為布

旄牛尾也以為旌又為舞者所執也

丹砂犀瑇瑁珠璣齒革龍門碣石北多馬牛羊旃

氈毛成足者名

裘筋角銅鐵則千里往往山出棊置

銅鐵最貴

〈그림 1〉 저자 미상,『經史註解』25장,「화식전」, 사본, 1730년대 이후, 장서각 소장.

앞에서 말한 것처럼「화식전」은『경사주해』에서 독립되어『화식전』이란 이름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그에 따라『화식전주해』로 이름하여 다른 이본과 구별하기로 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을 때는『화식전주해』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서지적 특징부터 살펴본다.

『경사주해』 안에 수록된「화식전」으로부터 독립되어 단행본으로 유통된『화식전주해』의 가장 큰 차이는『경사주해』의 본문 상단에 적어둔 비평 곧 眉批가『화식전주해』에서는 누락된 점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맨 첫머리 구절의『노자』설은 반대 취지로 쓴 것이니 이 또한 가장 좋다. 왕래는 교역하고 왕래함을 일컫는다.[首句老子之說, 反用之, 亦最好. 往來, 謂交易往來.]"라고 적힌 미비가『화식전주해』에서는 상단에도, 본문에도 빠져 있다. 이 미비에서 보듯이, 문장에 대한 수사적 비평도 있고, 어휘에 대한 풀이도 있다. 대체로는 "포괄하기를 빠짐없이 하였으니 기이하고 오묘하다.[抱括無遺, 奇哉妙哉!]"[9]처럼 문장의 감상과 품평이 주를 이룬다. 이

미비가 독립되어 유통된『화식전주해』전체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화식전주해』의 많은 이본을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모두 빠져 있었다.

두 번째로『화식전』에는 대체로 口訣吐가 달려 있고, 구결토의 내용도 사본마다 차이가 난다. <그림 1>에서도 구결토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10년 무렵에 尹根壽와 車天輅가「화식열전」에 구결토를 달아 이후의 구결토에 모델이 되었으나 필사자가 독자적으로 구결토를 단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화식전주해』를 포함하여 단행본『화식전』은 대체로 본문에 구결토를 달아 독자가 읽기 편리하도록 하였다.[10)]

세 번째로『화식전주해』의 內題 하단에 雙行註가 달려있는데 사본마다 차이가 난다. 내제 하단에 실린 글이 본문 끝에 옮겨서 수록되기도 했고, 일부 내용이 달라지거나 글이 실리지 않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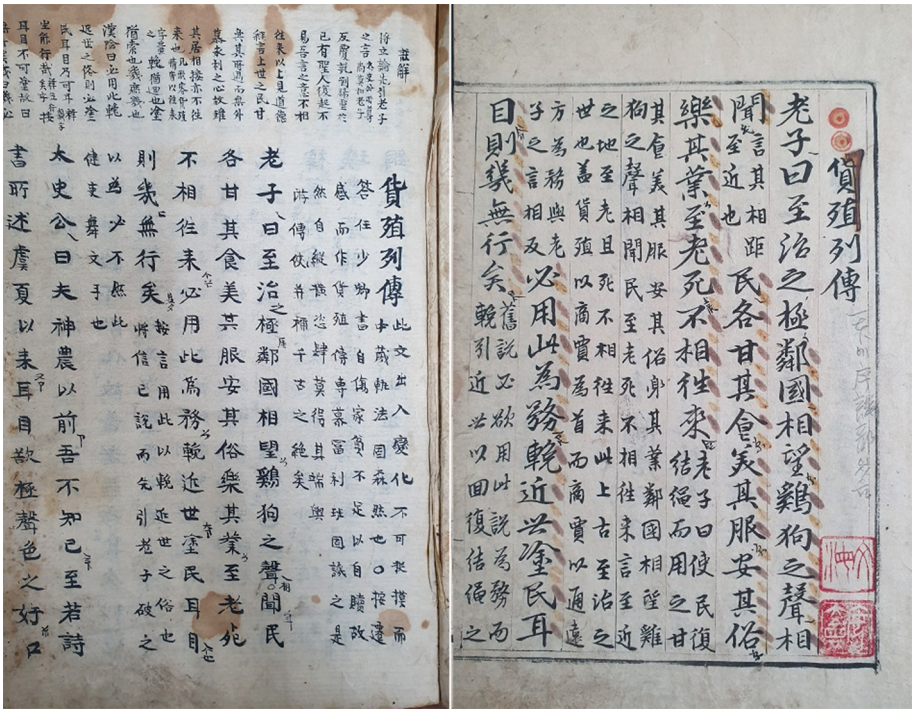
이본의 서지적 차이와 특징에 이어 주석과 풀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꼽을 수 있는 특징은『화식전주해』에 달린 주석의 독창성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732년 이후에 조선 학자가 저술한 이 주석서는 이전에 널리 유통된『史記評林』의 주석을 참고하고 일부 인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그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사기평림』에는 劉宋 裴駰의『史記集解』, 당 司馬貞의『史記索隱』, 당 張守節의『史記正義』의 이른바 三家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송대 이후 명대까지 저명한 문인의 주석과 비평이 실려있다.『사기평림』은 이후 동아시아에서 거듭 간행되며『사기』를 읽는 기본 텍스트로 활용되었다.『화식전주해』에서는『사기평림』의 주석을 古注로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문장의 맥락을 밝히고, 수사적 특징을 밝히는 창의적 주석을 새롭게 달았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고 독창적인 견해가 많아서 가치가 높다.

---

9) 저자 미상,『經史註解』, 34장,「화식전」, 사본, 장서각 소장.

10) 1610년 무렵에 李恒福이 명간본『史纂』을 산정하여 訓鍊都監字로 간행하였을 때「화식열전」에 尹根壽와 車天輅가 구결토를 달았다. 그러나『화식전』의 다양한 사본에 달린 구결토가 그들이 만든 구결토를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힘들다.



* 2종 모두 단행본으로 표제는『화식전』이고 內題는『화식열전』이다. 오른쪽 책은『화식전주해』의 이본이다. 왼쪽 책의 본문은 1610년 무렵에 車天輅가 중국본 주석을 산정하여 훈련도감자로 간행한『史纂』본『화식전』이다. 상단에 "註解"라 밝히고 작은 글씨로 쓴 것은『고금집주신교화식전』의 주석을 전재한 것이다. 책 전체 상단에 주석이 필사되었다.

〈그림 2〉 편자 미상,『貨殖傳』2종, 사본, 필자 소장.

다음으로『화식전주해』는「화식열전」전체 문장을 24개 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디「화식열전」은 한 편의 문장이므로 중간에 문단을 나누거나 행갈이를 하는 것은 원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에 따라『사기영선』이나 타키가와 카메타로(瀧川龜太郎)의『史記會注考證』에서는 단락을 나누거나 행갈이를 하지 않은 온전한 한 편의 문장으로 되어있다.[11] 그러나『사기평림』에 이르러서는 본문에 단락을 나누고

11) 瀧川龜太郎,『史記會注考證』권129,「貨殖列傳」장2,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60, "〈貨殖傳〉亦一篇文章, 後人分段提行, 非史公之舊, 今改." 청대에『사기』를 문장학의 시각으로 분석한『史記半解』에서 湯解(1661~1724)는 단락을 나누거나 행갈이하여 본문을 제시한 통용본을 본래 면목을 손상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張瑞芳・李淑芳,「平淡樸拙見眞意精神貫注浩氣行-簡析湯解《史記半

행갈이를 하여 제시하였다. 문장으로 감상하려는 의식이 가해진 때문이다. 『화식전주해』에서는 아예 독자적으로 24개의 단락을 나누었고, 단락 끝에 한 칸 낮추어 글을 써서 각 단락이 지닌 대의를 설명하였다. 위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주해의 방법은 김창흡의 「화식열전」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화식열전」을 문장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고증적 주석보다는 난해한 글자와 어휘, 지명, 사물을 풀이하고,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며,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문장의 우수성을 비평하는 주석을 다수 달았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문장학의 관점에서 「화식열전」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장을 공부하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화식전주해』는 가까운 시대의 사기 주석가로 삼연 김창흡을 곳곳에서 인용하였고, 주석의 기본 방향이 그의 풀이를 따르고 있는 것을 근거로 김창흡과 같은 당파의 학자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양흠의 주석본에 비해 앞서는 책으로 판단하여 대체로 18세기 중반에 노론계열 학자가 저술한 주석서로 간주한다.

Ⅲ. 『古今集註新校貨殖傳』의 서지와 주석의 특징

단행본 『화식전』으로 유통된 책 가운데 적지 않은 사본은 『古今集註新校貨殖傳』이다. 책명은 고금의 주석을 모으고 새롭게 교감한 「화식열전」이란 뜻이다. 이 책은 東山子 鄭亮欽이 저술한 주석서이다. 앞에서 살펴본 『화식전주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술이다. 저자와 저술을 처음 밝히고 소개하는 글이므로 서지사항을 먼저 밝히고 그 내용과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고금집주신교화식전』-책명이 길어 아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교화식전』으로 줄여서 쓴다.-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연세대, 경기대, 단국대, 경희대, 영남대, 간송문고, 강화역사박물관 등 많은 도서관과 개인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다. 간행되지 않았고, 현존하는 사본이 적어도 20여 종이 넘는다. 대부분 표제가

解》」, 『渭南師範學院學報』 29(22), 渭南師範學院, 2014, 22~28면.

『화식전』, 內題가『고금집주신교화식전』으로 되어있다. 표제가『고금집주신교화식전』으로 된 사본도 있고, 표제와 내제 모두『화식전』으로 된 사본도 있다.

『신교화식전』은 저작자 성명을 밝혀놓지 않은 사본이 대부분이라『사기』「화식열전」의 독립된 필사본으로 간주되어 연구자의 관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사본의 수가 말해주듯이 상당히 널리 퍼져 읽힌 주석서로서 18세기 조선 학자의 문헌학과 주석서 수준을 보여준다.

『신교화식전』의 이본 전체를 교감하지는 않았으나 몇 종의 이본을 확인한 결과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운 선본인지를 확정하기는 힘들었다. 이본마다 오자와 탈자, 일부 주석의 탈락 등 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적지 않아서 이본의 교감을 거쳐 정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교화식전』의 저자는 東山子 鄭亮欽이다. 사본 가운데 저자를 분명하게 밝힌 사본은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본 중에서 일본 간사이대(關西大) 도서관에 소장된『신교화식전』에는 卷首題 제목 아래에 '東山獨觀齋正本'이라 필사 원본의 출처를 밝혀놓았다. 여기서 동산은 정양흠의 아호이고, 독관재는 齋室名으로 보인다.[12] 정양흠은 다양한 호를 즐겨 썼는데 독관재가 그중 하나로 추정한다. 또 강전섭 소장『신교화식전』에는 정약용의 부친 丁載遠(1730~1792)을 언급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13] 분명『與猶堂全書』에 실려 있는 정약용의「東山子의 화식전 주석에 붙인다」란 글로 추정한다. 다음에 그 전문을 인용한다.

> 위의『貨殖列傳注』1권은 고 東山處士 鄭亮欽이 편찬한 책이다. 鄭公은 성품이 침착하고 돈후하며, 학식이 넓고 문장이 높았다. 정승감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砥平의 산골에 은거하여 결국 布衣로 생을 마쳤으니 식자가 애석하게 여겼다. 정공은 선친과 사이가 좋아서 늘 찾아와서 담론을 그치지 않았다. 언젠가 이 책을 선친께 보여주고 빨리 옮겨 베끼도록 하였다. 병진년(1796, 정조 20) 겨울 나는 마침 奎瀛府에서 책을 교감하였다. 당시 주상께서는『사기』의 여러

12)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편간,『日本現存朝鮮本研究 · 史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402면. 이 책에서 후지모토 교수는 獨觀齋라는 호를 가진 인물을 저자로 추정하여 金砿(1739~1816)일 것이라 했으나 잘못된 추정이라 판단한다.

13)『愁城志』이본과 함께 필사된 사본이다. 필자는 이 사본 원본을 열람하지는 못했고, 단국대학교 국문학과 윤주필 교수의 전언으로 판단하였다.

주석을 널리 구하셨는데 「화식열전」에 큰 관심을 두셔서 이 책이 드디어 채택되게 되었다. 아! 선비가 한 가지 기예에 정통한다면 끝내 한 번은 드러나는 법이니 후학들은 힘쓸지어다![14]

여기서 정양흠이 『貨殖列傳注』 1권을 편찬한 사실이 밝혀진다. 이름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신교화식전』이 틀림없다. 다만 정양흠의 저술이 전하지 않아 그의 저술로부터 『신교화식전』의 저자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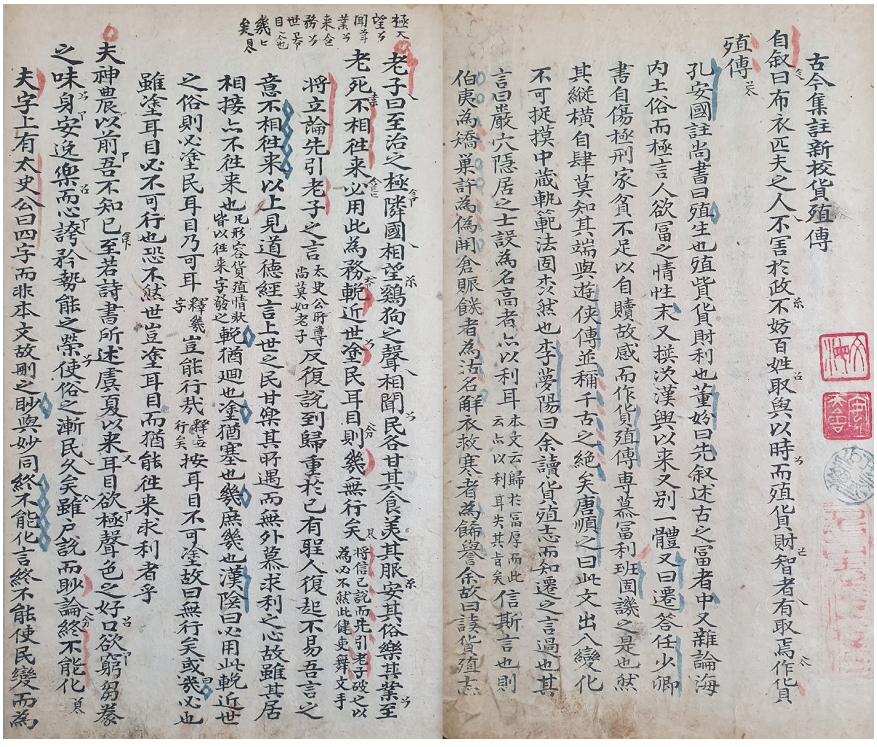
정양흠은 본관이 草溪로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문인이다. 남인으로 남인과 소북당파의 사대부와 친밀하게 지냈다.[15] 지평에 거주하면서 양근에 살던 저명한 소북시인 李羲師(1728~1811)와 인척관계가 있어 친밀하게 지냈다. 그래서 이희사의 『醉松詩稿』에는 그와 관련한 시가 상당히 많다. 몇 가지 정리하면, 그는 雙石齋, 聽秋堂 등의 호를 썼고, 고문을 잘하며 저술을 『浮槎雜記』라 불렀다고 하였다. 저명한 남인 문사인 南夏行의 저술 『四大春秋』에 1773년에 쓴 그의 서문이 이익의 서문과 나란히 실려 있다. 또 南夏正의 문집 『桐巢遺稿』에는 1775년에 쓴 그의 서문이 실려 있고, 뒤에는 남인 문사 柳慶種의 後序가 함께 실려 있다. 1780년에 『草溪鄭氏族譜』의 서문을 지었다. 학계에서 생소한 인물이나 당시에는 남인 명사와 교류가 잦았던 명망이 있는 학자였다. 저자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실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논하고자 한다.

『신교화식전』 이본 가운데 저자의 인적 사항을 밝힌 서문과 발문이 실린 이본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 있기는 하다. 일반 「화식열전」과는 달리 본문 앞 첫장에 『사기』 130권 「太史公自序」에서 「화식열전」의 저술 동기와 취지를 밝힌 문장을 <그림 3>에서와 같이 "自敍曰~"로 인용하고 이 문장을 보는 자신의 관점을 길게 밝혔다. 이 평설은 이 주석서를 편찬하게 된 동기를 밝힌 서문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 이 문장의 중간 이하 부분을 다음에 인용한다.

---

14)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3책, 文集 권14, 「跋東山子貨殖傳注」, "右『貨殖列傳注』一卷, 故東山處士鄭亮欽之所纂也. 鄭公性沈厚, 博學高文, 負公輔望, 隱居砥平山中, 竟以布衣終, 知者惜之. 與先子善, 每過, 談論不輟. 嘗以此編示先子, 亟令傳寫. 會丙辰冬, 校書奎瀛府, 時上廣求『史記』諸注, 尤於「貨殖傳」致意, 此編遂見採用. 嗟乎! 士苟有一藝之精, 終有一顯, 後學其勉哉!"

15) 성균관대본 『南譜』 권8에 수록되어 있고, 부친은 부사 鄭埈, 조부는 정랑 鄭熙績이며, 아들은 진사 鄭鴻賓으로 밝혀놓았다.


古今集註新校貨殖傳
自叙曰布衣匹夫之人不害於政不妨百姓取與以時而殖貨財智者有取焉作貨殖傳
孔安國註尚書曰殖生也殖貨貨財利也董妙曰先叙述古之富者中又雜論海內土俗而極言人欲富之情性末又摸汶漢與以來又別一體又曰遷答任少卿書自傷極刑家貧不足以自贖故感而作貨殖傳專慕富利班固譏之是也然其縱横自肆莫知其端與遊俠傳並稱千古之絶矣唐順之曰此文出入變化不可捉摸中藏軌範法固突然也李夢陽曰余讀貨殖志而知遷之言過也其言曰巖穴隱居之士誤爲名高者亦以利耳本文云歸於富厚而此云亦以利耳失其旨矣信斯言也則伯夷爲矯巢許爲偽閑倉賑饑者爲沽名解衣救寒者爲飾譽余故曰護貨殖志
老子曰至治之極隣國相望鷄狗之聲相聞民各甘其食美其服安其俗樂其業至老死不相往來以用此爲務輒近世塗民耳目則幾無行矣將信己說而先引老子破之以爲必不然此健史舞文手
將立論先引老子之言太史公所尊反復說到歸重於己有駕人復起不易吾言之意不相往來以上見道德經言上世之民甘樂其所遇而無外慕求利之心故雖其居相接亦不往來也見形容貨殖情狀皆以往來字發之輒猶迴也塗猶塞也幾庶幾也漢陰曰必用此輒近世之俗則必塗民耳目乃可耳釋幾字豈能行哉釋言行字按耳目不可塗故曰無行矣或幾必也雖塗耳目必不可行也恐不然世豈塗耳目而猶能往來求利者乎
夫神農以前吾不知已至若詩書所述虞夏以來耳目欲極聲色之好口欲窮芻豢之味身安逸樂而誇矜勢能之榮使俗之漸民久矣雖戶說而耶論終不能化
夫字上有太史公曰四字而非本文故刪之耶與妙同終不能使民變而爲

* 이 책은『古今文隨集』이란 표제 아래 몇 종의 작은 저술을 필사하였고, 그 첫 번째로『고금집주신교화식전』을 淨寫하였다.

〈그림 3〉 鄭亮欽 저,『古今集註新校貨殖傳』, 1책 1장 1면과 2장 1면, 사본, 필자 소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三代에 정치는 쇠퇴하고 백성의 재산은 고르지 않으며 兼并 현상이 일어나 빈부의 모양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되었다. 천하에서 즐겁고 어지럽게 오가는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가 없다. 또 백성을 불러들여 재물을 모이게 하여 교역하는 장소를 얻게 하는 것은 神農氏의 정치였고, 수레를 끌고 멀리 장사하며, 정성들여 음식을 차리고 술을 내와 대접하는 것은 文王의 포고문이었다. 물건을 판매하고 장사를 하여 생업을 일으키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貨殖이란 것은 백성들의 위대한 마음[大情]인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논하여 저술하지 않는다면 고금의 변화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太史公은 집안이 가난하여 贖錢을 내고 腐刑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드디어 유감을 품고「화식전」을 지었다고 말하는 후세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오로지 부

유함과 이익을 흠모하였다고 헐뜯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말이다. 태사공이 유감스럽게 여긴 것이 없었다면 이 「화식전」을 짓지 않았을까? 「화식전」을 저술하면서 유감스러워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오로지 부유함과 이익을 흠모했다는 태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나는 독자가 (태사공의) 근본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비방하는 논의만 떠들썩하게 벌이는 것을 슬퍼하였다. 그리하여 새로 교감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김에 옛 주석을 가져와 중복된 것을 없애고 같고 다른 것을 고찰하였다. 간혹 나의 뜻으로 변론하기도 하였다. 또 근세 학자가 논한 것을 모아서 '或說'로 갖추어 놓았다. 그중에서 漢陰의 설이 많아서 일부러 특별히 언급해둔다.-따르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곳이 없을 수 없었다.- 이름하여 『古今集註新校貨殖傳』이라 하였다. 비록 고루하여 새롭게 밝히고 드러낸 것은 없을지라도 고금에 저술하고 차례를 갖춘 뜻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16]

서문으로 봐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을 가진 글이다. 이 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화식열전」 저술의 평가, 다른 하나는 『신교화식전』 편찬의 범례이다.

인용문 앞 대목에서는 사마천이 부유함과 이익을 흠모하여 「화식열전」을 지었다는, 역대 논자의 부정적 평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정양흠은 그런 부정적 평가를 비판하고 "貨殖이란 것은 백성의 위대한 마음[大情]이라"며 부를 추구하는 욕망을 긍정하였고, 물건을 매매하고 생업을 일으키는 상업을 인간사에서 중요한 일로 인정하였다. 사마천으로서는 개인적 유감 여하와는 무관하게 역사가로서 「화식열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마천의 本意를 탐색하여 「화식열전」의 가치를 긍정한 것이다. 정양흠이 내세운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의 인식은 비슷한 시기의 남인 학자로서 『海東貨殖傳』을 저술한 食泥堂 李載運(1721~1782)과 인식을 공유한다.[17]

---

16) 鄭亮欽, 『古今集註新校貨殖傳』 장1, 사본, 필자 소장, "按三代政衰, 民産不均, 兼并起而貧富相千萬. 天下凞凞穰穰而往來者, 莫不爲利. 且致民聚貨, 交易得所, 神農之政也; 牽牛遠賈, 洗腆用酒, 文王之誥也, 販賈興業所由來久矣, 貨殖者, 亦民之大情也. 此而不別論撰, 非所謂通古今之變者也. 後人以太史公家貧不能自贖腐刑, 遂謂有感而作, 至譏其專慕富利, 非也. 使太史公無所感, 此傳當不作耶? 論撰貨殖, 感在其中而已, 烏覩所謂慕富利者哉? 予悲讀者不察本意, 徒謗議紛紜, 於是有新校之役, 因取舊註, 去其重複, 考其同異, 或以己意卞之. 又集近世學士之論, 以備或說, 漢陰說多, 故特言之-亦有不得不從違處.-名曰『古今集註新校貨殖傳』. 雖固陋無所發明, 然於古今撰次之意, 庶不大戾云爾."

『신교화식전』의 저술시기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정양흠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재원(1730~1792), 이희사(1728~1811)와 절친하였고, 그의 저술로 밝혀진 몇 편의 글이 대체로 1770년대 후반에 지어진 정황으로 놓고 볼 때 1770년대 후반에서 1780년대 초반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 시기는 저자 나이 40대와 50대 전후이므로 저술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중상주의적 상업론과 이용후생론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직접 관련된 대표적 저술에는 李重煥(1690~1756)이 1751년 이전에 저술한『擇里志』, 이재운이 1750년 이후 저술한『해동화식전』, 朴齊家(1750~1805)가 1778년에 저술한『北學議』가 있다. 3종의 저작을 저술한 이들 가운데 두 명은 남인이고, 한 명은 小北이라 정양흠에게는 당파가 같은 선후배였다. 이 3종의 저술에 사마천의「화식열전」은 所依經典이라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3종의 저술이 출현한 것을 목도하고 그 뿌리가 되는「화식열전」을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여기에 더해 그 문학성을 탐구하면서 독해하기 위해 정양흠이『신교화식전』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이 아니라 주석서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의의는 낮지 않다. 주석을 통해 중상주의 상업관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중후반 상업론에서 무시하지 못할 가치를 지닌다.

『신교화식전』은 종합적 주석서로 미덕을 지니고 있다. 먼저 형식적 특징을 설명한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이본을 교감하여 본문을 확정한 다음 본문 하단에 한 행을 낮춰 주석을 붙였다. 의미단락을 나누어 본문과 주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설정한 단락은 모두 46개이다. 원문에는 글자의 교감사항을 쌍행주로 넣기도 하였다. 주석은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주석보다도 상세하다. 문자의 고증에서부터 어구와 지리, 지명, 물산의 자세한 주석과 난해한 어구의 해석과 문장의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와 비평, 전체 의미의 설명과 경영이론에 대한 보완설명까지 이루어져 종합적 주석서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림 3>에 보인 본문 첫 장을 대상으로 주석의 양상을 설명한다.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不相往來]”라는 어구에 비중을 두어 해설하였다. 이 어구를 외부 세계를 동경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고대 사회의 교역상 특징을 대변하는 상징적 구절로 이해하였다.[18] 새롭기도 하고 탁월하기도 한 주석이다. 특히 이 구절의 ‘往來’라는

17) 안대회,「李載運의『海東貨殖傳』과 巨富列傳」,『한국실학연구』37, 한국실학학회, 2019(b), 301~342면.

말에 주목하여 “무릇 貨殖하는 정상을 형용할 때에는 모두 ‘왕래’라는 글자로 드러냈다.”[19]라는 쌍행주를 달았다. 이 주석 또한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서술하는 문리를 잘 해명한 주석이다. 또 다음에 나오는 구절 ‘요즘과 같은 세상을 (억지로) 이끌어[輓近世]’의 輓은 晩 또는 挽으로 해석하고 보통은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였다.[20] 그러나 정양흠은 만을 ‘되돌리다[廻]’로 풀이했는데[21] 교역이 활발한 요즘과 같은 시대 조류를 저 고대의 상황으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풀이하여 문맥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 문장을 “저 신농씨 이전은[夫神農以前]”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본디 이 문장에는 “太史公曰”이 들어가 있다. 정양흠은 이 네 글자를 삭제하고 그 이유를 “夫자 위에는 ‘太史公曰’ 네 글자가 있는데 본문이 아닌 고로 삭제하였다.”[22]라고 밝혔다. 정양흠처럼 교감한 주석가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이 교감이 타당한지는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그만의 독자적 기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석의 실제 양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앞에서 인용한 문장에서 밝힌 편찬 범례에 잘 나타나 있다. 정양흠은 “옛 주석을 가져와 중복된 것을 없애고 같고 다른 것을 고찰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앞선 주석가의 주석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이다. 또 주석가 사이에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이견을 함께 밝혀놓았다. 그가 말한 옛 주석은 곧 『사기평림』 등에 실려있는 중국 주석가의 주석을 가리킨다.

정양흠은 또 ‘或說’이란 말로 근세 학자의 견해를 갖춰 놓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주석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조선 학자의 주장을 채택한 사실을 가리킨다. 책명인 ‘古今集註新校貨殖傳’은 고금의 주석을 집성했음을 표방하고 있는데 옛 주석은 중국 주석가를, 지금 주석은 근세의 조선 주석가를 가리킨다. ‘혹설’

---

18) 鄭亮欽 저, 『古今集註新校貨殖傳』, 1책 1장, 사본, 필자 소장, “言上世之民, 甘樂其所遇, 而無外慕求利之心. 故雖其居相接, 亦不相往來.”

19) 정양흠, 앞의 책, 같은 곳, “凡形容貨殖情狀, 皆以往來字發之.”

20) 瀧川龜太郎, 앞의 책, 같은 곳, 3면.

21) 정양흠, 앞의 책, 같은 곳, “輓, 猶廻也.” 이본에 따라 廻가 回로 되어있는 데가 있다. 朱枝富, 「《貨殖列傳》“疑難雜疑”考辨新論[1]」, 『渭南師範學院學報』 31(17), 渭南師範學院, 2016, 35~45면에서 輓을 晩으로 본 『史記索隱』의 해석을 오류로 보고 挽이 옳으며 그 뜻은 挽回로 확대해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史記通解』에서 張大可가 “근현대를 돌이켜 고대의 법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해석한 주장에 찬동하였다. 정양흠의 해석은 더욱 정확한 의미로 해석했다.

22) 정양흠, 앞의 책, 같은 곳, “夫字上有太史公曰四字 而非本文, 故刪之.”

가운데 漢陰의 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특별히 언급하였다. 실제로 '한음'의 주석은 곳곳에 실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음'이 누구의 호인지 알 수 없으나 정양흠의 관점에 부합하는 참신한 주석이 많다. 일단은 18세기의 남인 출신 학자로 추정한다.

정양흠은 또 "간혹 나의 뜻으로 변론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주석이 있음을 밝혔다. 겸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고주와는 다른 창의적이고 참신한 설명이 상당히 많다. 그것이『신교화식전』의 중요한 가치이다. 주석의 분량은 본문의 서너 배 이상이 되어『화식전주해』에 비해서도 두세 배가 많다.「화식열전」의 주석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신교화식전』보다 더 자세한 주석서는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신교화식전』은 단순한 주석서의 범주를 넘어「화식열전」의 깊이 있는 분석서의 단계를 보여주었다. 사마천의 立言本意를 파악하고,「화식열전」문장의 수사와 문법을 분석하여 문리를 포착해 설명하였다. 그 점에서「화식열전」의 경제론과 학술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역사서로서 정확하게 읽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독특하고 난해한 문장을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다. 문장학의 관점에서「화식열전」을 세밀하게 분석한 단독저서인 셈이다. 주석서의 성격을 지닌『신교화식전』이지만, 정양흠은「화식열전」경제이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한 내용을 곳곳에서 펼쳐놓기도 하였다. 그중 富有三品論과 같은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또 고증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주석이 많다.「화식열전」에서 천하물산을 제시하는 대목에는 "북쪽에 있는 烏桓과 夫餘는 동쪽에 있는 穢貊과 朝鮮, 眞蕃의 이익을 주관한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여 사마천 당시에 한반도와 요동의 경제지리를 언급하였다. 다수 주석서에서는 간단한 주석을 다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양흠은 "부여 이하는 모두 우리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조선시대 지리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다. 특히 조선 지역의 물산까지 小註에서 상세하게 달고 있는데 주요 근거는 物産記의 선구적 저술인 眉叟 許穆(1595~1682)의『地乘』에서 가져왔다.『지승』은 명저『記言』에 수록되어 널리 읽혔고,「화식열전」의 경제지리 서술에 큰 영향을 받은 저술이다. 허목은 학술과 정치에서 남인 당파를 이끌고 淸南의 영수로 활동하여 남인 학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정양흠 역시 그 영향권에 들어있다.[23] 학술사상과 구체적 주석에서 영향관계가 뚜렷하다.

Ⅳ. 18세기 조선학자의 『화식전』 주석서의 특징

한국에서 「화식열전」은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기』 전체의 부분으로 읽혔다. 校書館에서 三家注 본을 세종조(1425년)에 庚子字로 간행하였고, 이후 명종조에는 甲寅字로 간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凌稚隆이 편찬한 『史記評林』이 顯宗實錄字本 활자본과 목판본 등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널리 읽혔다. 『사기』 삼가주와 『사기평림』은 분량이 많아서 구비하고 열람하기에 힘들었다. 또 복고주의 문학풍조의 영향으로 명대에는 『사기』 選本이 대량 유통되었다.[24] 능치륭은 『사기평림』 편찬 이후에 작품을 뽑고 평점을 가하여 『史記纂』 17권을 편찬하였다. 이 선본은 『史纂全選』 53편과 『史纂抄選』 20편으로 구성하여 王世貞의 서문을 얹어 간행하였다.[25] 『사기찬』은 주석이 없이 간략한 평과 평점이 주축이 된 선집이었다.

조선에서는 『사기평림』과 『사기찬』을 중심으로 여러 종의 책을 간행하였다. 1603년 부제학 李睟光이 『사기찬』을 교정하여 상을 받았고,[26] 이후 1610년 무렵에 趙緯韓 · 李德馨 · 尹根壽의 도움을 받아 李恒福이 명간본 『사기평림』의 주석을 축약하여 『사찬』을 편찬하여 訓鍊都監字로 간행하였다. 『사찬』은 능치륭 편찬의 『사기찬』을 다시 큰 폭으로 축약한 바탕 위에 『사기평림』의 繁瑣한 주석과 비평을 간략하게 줄여서 얹었다. 훈련도감자 『사찬』은 『사기평림』과 『사기찬』을 조선에 필요한 방식으로 대폭 재편집하여 명간본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 실무는 저명한 문인인 車天輅가 담당하였다. 이항복은 『사찬』의 발문에서 "고금의 註疏를 산정하는 책임은 온전히 斯文 車天輅에게 맡겼다."[27]라고 밝혔다. 이후 숙종 때에는 명간본 『사기찬』의 원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增定史記纂』을 무신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단 이 판본은 주석과 비평, 평점을 모두 삭제한 白文本이었다. 이후에

---

23) 안대회, 「서설-부의 추구와 생업의 가치를 역설한 이재운의 중상주의적 경영론」, 이재운 저, 안대회 역, 『해동화식전』, 휴머니스트, 2019, 7~35면.

24) 凌朝棟, 앞의 2020 논문.

25) 심경호, 「宣祖 · 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硏鑽에 관하여-韓愈文과 『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 『서지학보』 17, 한국서지학회, 1996, 3~39면.

26) 이수광, 『芝峰集』 附錄, 「行狀張維」, 한국문집총간 66집, "癸卯夏, 又拜副提學, 校正『史記纂』以進, 又賜廏馬."

27) 이항복, 『白沙集』 권2, 「史纂後跋」, 한국문집총간 260집, "其古今註疏刪定之責, 一委之車斯文天輅."

도 다양한『사기』선집이 간본과 사본으로 유통되었는데 차천로가 주석을 정리한『사찬』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사찬』은 무엇보다『사기』의 문장을 익히려는 독자에게 간편하게 활용할 만한 선본이었다. 이 책의 권11에「화식열전」이 수록되었는데 이것만을 독립하여 단행본으로 널리 필사하여 읽었다. 또한「화식열전」은『사기』가운데 문체가 매우 독특하고 독해가 난해하며, 경제와 지리상 지닌 학술상의 가치로 인하여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연구열과 독해열이 발생하였다.

기왕의 주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새롭게 주석을 가한 첫걸음은 三淵 金昌翕(1653~1722)이 뗐다.『三淵集』권35~36에 실린「漫錄」에는 15板 30則에 이르는 분량으로『사기』의 문장을 분석한 箚記가 실려있다. 그가 특별히 주목한 문장은「항우본기」와「백이열전」,「화식열전」등이었다. 그중「화식열전」에는 13칙에 이른 견해를 밝혔고,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다수였다. 특히,「화식열전」전체를 상고에서 진나라까지의 古傳과 漢代의 漢傳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등 문장 분석법을 적용한 것은 흥미로운 시도였다. 古傳과 漢傳으로 구분한 이 구도는 이후『화식전주해』와『신주화식전』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28]

김창흡 이후에는『경사주해』가 영조 연간에 나왔다. 저자를 밝힐 근거가 없으나 김창흡의 주장이 대거 들어간 점으로 보아 노론계 학자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 책에 포함된『貨殖傳註解』가 단행본으로도 널리 유통되었다.『화식전주해』는 김창흡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다. 13칙에 이르는 김창흡의 주석이 거의 모두 전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화식열전」전체 문장을 24개 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한 방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김창흡의 문장을 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화식전주해』의 저술 전후한 시기에 漢陰이란 호를 쓰는 학자의 주석이 새로 나왔다. 한음의 주석은 현재 오로지『신교화식전』에 인용된 상태로 전한다. 정양흠은 조선 학자의 설을 '或說'이라 하여 전재하거나 채택하였는데 그중 漢陰의 설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29군데에서 인용하였다. 한음을 18세기에 활동한 남인 학자로 추정하기는 하나 특정한 인물로 밝힐 근거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음의 설은 어구를 해석한 것도 있으나 대개는 문장의 수사, 문맥과 의미, 文理의 추적과 평가

28) 金昌翕,『三淵集』권36,「漫錄」, 한국문집총간 166집, "〈貨殖傳〉, 當分兩截, 作古今傳看. 自'神農以前', 以至'豈非以富耶'爲古傳, 自'漢興海內', 至'豈所謂素封者耶'爲漢傳."

등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주석이 많아 학술상 가치가 높다.

정양흠의 『신교화식전』은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주석서에서 내용을 일부 채택하기는 했으나 대체로는 자신의 독법과 견해를 위주로 만든 주석서이다. 차천로의 『사찬』 주석정리와 김창흡의 「화식열전」 독법 이래로 18세기 학자들이 전개한 문장의 수사를 중시한 수사학적 주석서의 범주에 속한다. 이 책은 당시에 나온 어떤 주석서보다도 수준이 높아 이 방면의 대표적 저술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대략적인 특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주석서가 지닌 수사학적 주석의 가치는 별도의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다.[29]

『신교화식전』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화식전』의 주석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798년 정조의 명에 따라 『史記選纂注』를 편찬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위에 인용한 각주 13번의 인용문에서 "당시 주상께서는 『사기』의 여러 주석을 널리 구하셨는데"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정조가 기존에 나와 있는 주석서를 수집한 것은 새로운 주석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정조는 1796년에 李晩秀 · 李在學 · 李翼晋 · 朴齊家 · 정약용 등에게 명을 내려 『사기영선』을 교정하게 하고 이어서 간행하였다. 그 뒤 이 책에 纂註를 붙이고자 하여 金履喬 · 金履載 · 洪奭周 · 金近淳 · 徐俊輔 등에게 그 일을 맡겼다. 신하들이 『사기선찬주』를 완성하여 국왕에게 올리자 주석이 번다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정조가 주석을 刪正하려 하였다. 1797년 윤6월에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부임하게 되자 정조는 "곡산은 한가한 고을이니 가서 『사기선찬주』를 산정하라."라고 명하였다. 정약용이 곡산에서 틈틈이 깊이 연구하고 수정하여 완성하고 난 뒤에 1798년 李晩秀에게 완성된 책과 함께 편지를 보내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고 타당치 못한 곳이 있으면 삭제하고 윤색한 다음 정조에게 올려달라고 부탁했다.[30] 이만수는 답장을 보내 "책이 상주되자 주상의 뜻에 맞았다."라는 소식을 알려왔다.[31]

정약용은 『사기선찬주』를 국왕에게 封進할 때 「『사기선찬주』를 올리는 글」을 국왕에게 바쳤다. 『여유당전서』에 실려있는 이 글의 앞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29) "『史記』「貨殖列傳」에 대한 18세기 조선 학자의 수사학적 주석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30) 정약용, 『定本與猶堂全書』 4, 文集 3, 「與李成仲晩秀」,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70면.

31) 정약용, 앞의 책 3, 文集 2, 「自撰墓誌銘-集中本」, 261~262면.

> 신이 대궐을 하직하던 날『사기선찬주』의 명을 받았습니다. 신은 황공하고 감격하여 우러러 성상의 은혜로운 보살핌을 받들었으나 부임한 이래로 백성에 관한 업무가 번잡하여 저술하는 데 정신을 쏟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일을 마쳤습니다. 삼가『사기선찬주』10권을 바쳐 우러러 열람하시도록 합니다. 아울러 그 凡例를 아래와 같이 열거합니다. 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
> 1. 注釋의 경우 一家의 說만 있는 것과 諸家의 설이 서로 같은 것은 인명과 서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의 설이 같지 않더라도 다툼이 크지 않은 것은 그냥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툼이 작지 않고 시비가 일어나 결말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명과 서명을 드러내어 '服虔이 말하기를', '索隱에 이르기를'이라고 하였습니다.[32]

이것으로 볼 때 정조는『사기영선』의 간행과 함께 그 후속작업으로『사기선찬주』를 계획하였고, 김이교와 홍석주를 비롯한 신하들이 일차작업을 한 다음 정약용이 개정작업을 완성하여 국왕에게 바쳤음을 알 수 있다.『사기선찬주』는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으나 이전에 나온 주석서의 계통을 밟아서 발전시킨 주목할 만한 주석서로 추정한다. 위에서는 범례를 하나만 소개하였으나 전체는 모두 7개 조항이고, 범례 하단에는 19개 항에 이르는 새롭게 고증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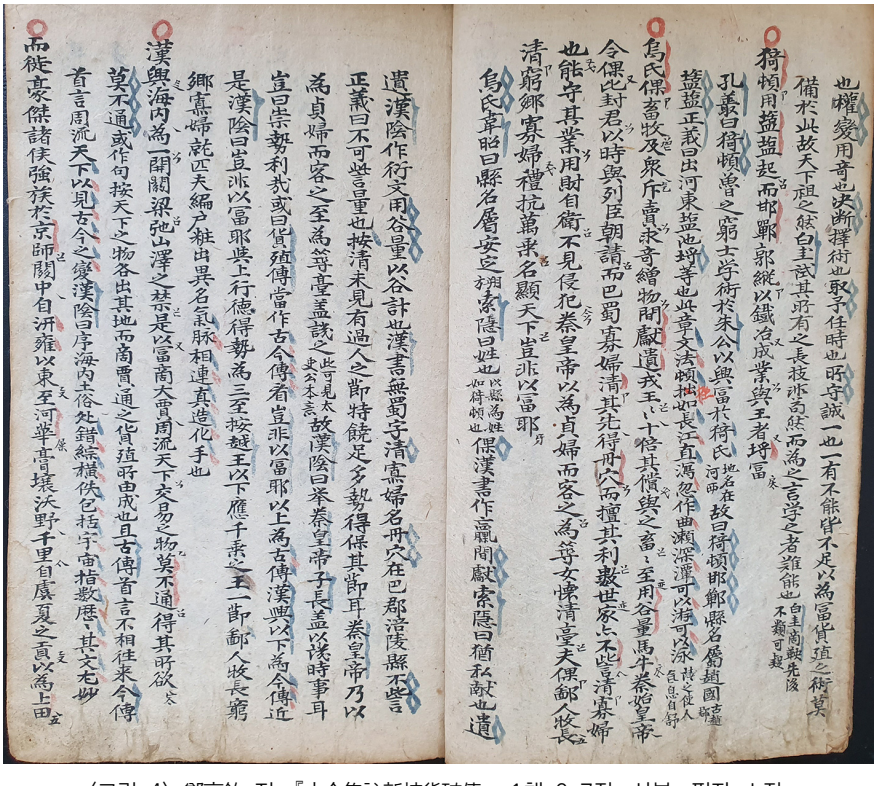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18세기『화식전』의 주석서가 지닌 특징을 두 가지 인용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는 고대 중국 상업의 현황과 計然, 範蠡, 子貢, 白圭, 猗頓, 烏氏倮, 寡婦淸 등 秦나라 시기까지의 巨富의 상업관과 행적을 서술한 다음 漢나라의 경제 상황을 서술하는 대목이다. <그림 4>에 해당 대목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그 전후의 문장을 다음에 인용하였다.

> 대저 倮는 변방 사람으로서 목축의 우두머리였고, 淸은 궁벽한 마을의 과부에 불과하였으나 제왕과 대등한 예우를 받게 되어 (이들의) 이름이 천하에 뚜

32) 정약용, 앞의 책 2, 文集 1,「進史記選纂注啓【戊午春在谷山】」, 245~246면, "臣於翰陛之日, 伏奉『史記選纂注』之命. 臣惶懼感激, 仰領恩念, 第緣莅任以來, 民事紛沓, 未能覃精選述, 今始卒業. 謹將『史記選纂注』十卷, 仰塵乙覽, 竝其凡例, 開列如左. 臣無任戰悸之至. 一, 注釋只有一家說, 或諸家說相同者, 不標人名書名. 諸家說不同, 而所爭不大者, 只云'一云如此'. 所爭不小, 聚訟不決者, 著其人名書名, 云'服虔曰', '《索隱》曰'."

렷이 드러났으니 어찌 이들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나라가 흥기하여 海內가 하나로 되자 (각 제후국의) 관문과 교량이 개통되었고, 산과 물의 이용을 금지하던 법령도 완화되었다. 그로 인해 富商大賈가 천하를 두루 다녀 교역하는 물자가 유통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33]



〈그림 4〉 鄭亮欽 저, 『古今集註新校貨殖傳』, 1책 6~7장, 사본, 필자 소장.

33) 瀧川龜太郎, 앞의 책 69권, 「貨殖列傳」, 16~17면, “夫倮鄙人牧長, 淸窮鄉寡婦, 禮抗萬乘, 名顯天下, 豈非以富邪? 漢興, 海內爲一, 開關梁·弛山澤之禁. 是以富商大賈周流天下, 交易之物莫不通, 得其所欲.” 번역은 성균관대 동양사연구실, 「『史記』〈貨殖列傳〉 역주 1」, 『중국사연구』 18, 중국사학회, 2002, 361~311면을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대목은『사기평림』에서 단락을 나누지 않았으나『사찬』이래로 위에서처럼 '한나라가 흥기하여[漢興]' 이하를 새 단락으로 문단 나누기를 했다.『사찬』의 단락 설정은 이후 조선 학자가 이 문단을 이해하는 단초를 열었다. 김창흡은 '한나라가 흥기하여[漢興]'의 전후를 古傳과 漢傳으로 구분하여『사찬』을 보는 중요한 구도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화식전주해』에서는 앞 문장을 제8단으로, 뒤 문장을 제9단으로 구분하였다. 제9단에서 이를 설명하여 "천하의 풍속을 서술하되 도읍의 건설, 政敎의 풍속은 고금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가 흥기하여[漢興]'로 시작했다"라는 주석을 달았다.[34]

『신주화식전』에서도 똑같이 단락을 새로 나눈 다음 그 주석에서 "또 古傳에서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不相往來]"는 말을 앞세웠던 반면, 漢傳에서는 "천하를 두루 다녔다[周流天下]"는 말을 앞세워서 고금의 변화를 드러내 보였다"라고 설명하여 김창흡의 구도를 받아들인 뒤에 한나라 이전은 물자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나라 흥기 이후에는 상인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며 물자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의 큰 구도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조선 학자가「화식열전」을 읽는 독자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석서 사이에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 특히,『신주화식전』의 문맥 이해는 탁월한 식견을 드러내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화식열전」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문리와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자 하는 주석이 적지 않다.

두 번째로「화식열전」에는 꼼꼼한 고증적 주석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한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화식전주해』에서 2단으로 나눈 곳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 『周書』에서 "농부가 생산해내지 않으면 먹을 것이 모자라고, 공인이 생산해내지 않으면 물건이 모자라며, 상인이 생산해내지 않으면 三寶가 끊어지며, 사냥꾼이 생산해내지 않으면 재물이 고갈된다."라고 했다. 재화가 고갈되면 산과 물은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35]

---

34) 저자 미상,『貨殖傳』, 사본, 필자 소장, "故敍列天下謠俗, 而都邑建置・政敎風俗, 古今不同, 故自漢興始."

35) 瀧川龜太郎, 앞의 책, 같은 곳, 6면, "『周書』曰, '農不出則乏其食, 工不出則乏其事, 商不出則三寶絕,

이 대목에서 우선 '『周書』'는 逸失된 문헌으로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본문에 나오는 '三寶'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사기평림』까지 중국의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을 시도한 학자는 金昌翕이었다. "삼보는 풀이하기가 어렵다. 농부와 공인, 사냥꾼 세 부류가 생산한 물화로 풀이하면 거칠게나마 뜻이 통한다.[三寶難解, 以農工虞三者物貨解之, 亦粗通.]"라는 새로운 주석을 달았다.36) 『화식전주해』에서는 김창흡의 이 주석을 '삼보' 아래에 인용하였다. 『신교화식전』에서는 이 대목에 더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 事는 물건이란 말과 같다. 三寶는 어떤 학자가 농부와 공인, 사냥꾼이라고 말했다. 이제 먹을 것, 물건,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비교적 명확할 듯하다.37)

이 주석은 새롭고 명료하다. 주석에서 한 가지 주장으로 소개한 '어떤 학자'는 곧 김창흡이다. 각주 15번에 인용한 평설에서 정양흠이 '或說'이란 말로 근세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다고 밝혔는데 이 주석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 뒤에는 먹을 것, 물건, 재물을 삼보로 제시하여 자신이 보는 견해를 밝혀놓았다. 瀧川龜太郎의 『史記會注考證』에서는 에도 시기의 저명한 학자인 中井積德(1732~1817)의 설을 인용하였는데 정양흠의 설과 똑같다.38)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므로 서로의 저작을 보았을 리가 없는데 뜻밖에도 약속한 듯이 같다.39)

한편, 이 '삼보'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석을 달아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기울인 이로는 정약용이 있다. 『사기선찬주』 가운데 「화식열전」에서 '삼보'를 이해하기 힘든 어휘로 뽑아 주석을 달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조에게는 상고할 만한 기왕의 주석이 없다고 보고했고,40) 황해도 관찰사 李義駿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오직 '삼보'

虞不出則財匱少.' 財匱少而山澤不辟矣."

36) 김창흡, 앞의 글.

37) 정양흠, 앞의 책, 3장, "事猶言物也. 三寶, 或曰農工虞也. 今以食事財當之, 似較明."

38) 瀧川龜太郎, 앞의 책, 6면.

39) 朱枝富의 위의 논문에는 "三寶"가 실린 문장을 韓兆琦 등 현대 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변증하여 크게 참고가 된다.

만은 여전히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고민임을 밝혔다.[41]『사기선찬주』를 완성하여 李晩秀에게 보낼 때 함께 보낸 편지에서 "「貨殖傳」의 '三寶'는 지난번에『사기』에 주석을 단 학인이 위 구절에 열거한 농부와 공인, 사냥꾼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사기평림』과 여러 좋은 판본을 살펴보아도 이런 설이 전혀 없어서 감히 함부로 스스로 주석을 달 수 없으니 이것이 유감입니다. 널리 살펴보고서 주석을 첨가해주시기 바랍니다."[42]라고 말했다. 이전과 달리 이 편지에서는『사기』주석가의 주석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약용이 확인했다는 주석은 곧 김창흡의 설이다. 정약용이 이 설을『삼연집』「만록」이나『화식전주해』,『신교화식전』의 세 가지 문헌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확인했음이 분명하다. 이미 이태 전에『사기영선』을 교감했을 때 정양흠의『신교화식전』을 정조에게 바쳤다고 말한 것을 통해서『신교화식전』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정양흠의 설을 바로 채택하지 않고 그 주장의 근원을 따졌다. 이것은『사기선찬주』가 중국 주석가의 주석 위주로 모으려 한 방침을 취했기에 오히려 조선 학자의 새로운 주석을 선뜻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더욱이 국왕에게 바쳐야 하고 이른바 御定書로 만들어질 책이므로 주석의 권위와 정통성을 고려하여 조선 학자의 설을 그대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2종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학자의『사기』「화식열전」주석서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밝힌 사실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

40) 정약용,「進史記選纂注啓」, 앞의 글. "「貨殖傳」'三寶', 注無可考."

41) 정약용, 앞의 책 4, 文集 3,「與李觀察義駿-丁巳冬, 余在谷山, 李公爲黃海監司」, "唯三寶之訓, 尙無確據可悶."

42) 정약용, 앞의 책 4, 文集3,「與李成仲晩秀」, 70면, "「貨殖傳」'三寶', 往時明見注史家, 以上句所列農工虞當之, 今考『評林』本及諸好本, 竝無此說, 不敢妄自注釋, 此爲可恨, 幸博攷而添注之."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사기』「화식열전」에 주석을 가한 주석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단행본으로 유통된 「화식열전」의 주석서가 몇 종에 이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經史註解』의 일부로 『貨殖傳註解』가 단행본으로 유통되었고, 『古今集註新校貨殖傳』이 편찬되어 10여 종 이상의 필사본이 유통되었다. 전자는 저자를 밝히지 못했으나 후자는 鄭亮欽이 저자임을 밝혔다. 덧붙여서 漢陰이란 호를 가진 학자의 주석서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1796년에 정조의 명에 따라 金履喬와 洪奭周 등이 『史記選纂注』를 완성하였고, 1798년에 정약용이 그 번다한 주석을 刪正하여 주석서를 완성한 사실이 있음도 밝혔다. 뒤의 2종은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고 그 일부가 다른 주석서에 소개되어있다. 이리하여 18세기에 적어도 4종의 「화식열전」 주석서가 조선 학자에 의해 편찬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18세기 조선 학자의 「화식열전」 주석서는 기왕에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던 三家注나 『史記評林』의 주석을 반영하기는 했으나 새로운 관점에서 주석을 붙였다. 문장을 분석하는 수사학의 관점에서 단락을 구분하고 문장의 서술구조와 문맥의 전개양상을 설명하는 주석을 위주로 하였다. 김창흡 이래로 18세기 조선 학자의 「화식열전」 주석서는 「화식열전」을 보는 참신하고 독특한 견해를 다수 제기하였다.

세 번째로 「화식열전」에 집중한 주석서는 기왕의 주석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주석을 다수 첨가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들은 '三寶'의 경우처럼 옛 주석서에서는 달지 않은 주석인데 이에 대해서 김창흡과 정양흠은 각기 다른 주석을 달았다. 또 『신교화식전』에서는 조선의 강토인 夫餘 이하 朝鮮, 眞蕃 등의 항목에 許穆의 『地乘』 등을 활용하여 어디보다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이처럼 기왕의 주석서에서는 볼 수 없는 참신한 주석이 상당히 많아 관심을 끈다.

『신교화식전』 등과 같은 18세기 조선의 「화식열전」 주석서는 18세기를 전후한 시기 동아시아 학계의 『사기』와 「화식열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 후기의 경제와 경영 및 지리와 역사, 문학 분야의 여러 경향과 맞물려 주석서가 산출되었다. 유난히 18세기 조선에서 「화식열전」 주석서가 다수 나온 것은 상공업을 억압하는 사회적 관습에 대한 반작용이 크다고 본다. 지식계는 상공업 진흥의 이론적 기반으로 「화식열전」에 주목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현재 중국의『사기』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주석서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들 역시 이 자료를 검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문헌학적 관점에서「화식열전」주석서를 살펴보았다. 수사학적 주석의 구체적 양상은 다른 논문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0.04.20 심사일: 2020.05.25 게재확정일: 2020.06.17

참고문헌

金昌翕,『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5~167
凌稚隆 編, 車天輅 校,『史纂』, 7책, 訓鍊都監字 活字, 1612
凌稚隆 編,『增定史記纂』, 10책, 顯宗實錄字本 活字, 1674
凌稚隆 編, 馬雅琴 整理,『史記纂』, 商務印書館, 2013
藤本幸夫 編,『日本現存朝鮮本研究 · 史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瀧川龜太郎,『史記會注考證』,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 1960
毛金霞,『史記敍事研究』, 陝西人民教育出版社, 西安, 2006
潘吟閣,『史記貨殖傳新詮』, 商務印書館, 1931
李載運 저, 安大會 역,『海東貨殖傳』, 휴머니스트, 2019
李恒福,『白沙集』, 한국문집총간 260
張大可 · 丁德科,『史記通解』, 商務印書館, 2015
저자 미상,『貨殖傳』, 1책, 사본, 필자 소장
丁若鏞,『定本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鄭亮欽,『古今集註新校貨殖傳』, 1책, 사본, 국립중앙도서관, 필자, 장서각 등 소장
趙生群,『史記文獻學叢稿』, 江蘇古籍, 南京, 2000
韓兆琦,『史記箋證』, 江西人民出版社, 2004
邱詩雯,『淸代桐城派『史記』學研究』, 新文豐出版公司, 2018

김경호,「『史記』「貨殖列傳」의 구성과 "自然之驗"의 의미」,『사림』46, 수선사학회, 2013
서신혜,「貨殖傳 수용의 양태와 경향」,『한국문화』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성균관대 동양사연구실,「『史記』<貨殖列傳> 역주 1」,『중국사연구』18, 중국사학회, 2002
_____,「『史記』<貨殖列傳> 역주 2」,『중국사연구』21, 중국사학회, 2002
심경호,「宣祖 · 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硏鑽에 관하여-韓愈文과『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서지학보』17, 한국서지학회, 1996
안대회,「18세기 새로운 富의 인식과 理財論-이재운의『海東貨殖傳』연구」,『역사비평』128, 역사문제연구소, 2019(a)
_____,「李載運의『海東貨殖傳』과 巨富列傳」,『한국실학연구』37, 한국실학학회, 2019(b)
양중석,「조선 문인들이 본『사기』「화식열전」」,『중국문학』89,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江志豪,「牛運震之文章評論學」, 香港中文大 博士學位論文, 2004
瀧康秀,「齋藤拙堂「梅溪遊記」と『史記』貨殖列傳-文章における敍事と議論」,『漢文學解釋與研究』10, 漢文學研究會 編, 2008
凌朝棟,「選讀精彩篇章傳播《史記》文化-《〈史記〉選本研究》成果要覽」,『渭南師範學院學報』35(3),

渭南師範學院, 2020
呂錫生,「記貨殖列傳散論」,『天津社會科學』1, 天津社會科學院, 1989
劉寧,「史記敍事學研究」, 中國陝西師範大 碩士學位論文, 2006
張文華,「近十年來『史記・貨殖列傳』研究綜述」,『淮陰師範學院學報』27(4), 淮陰師範學院, 2005
張瑞芳・李淑芳,「平淡樸拙見眞意精神貫注浩氣行-簡析湯解《史記半解》」,『渭南師範學院學報』29(22), 渭南師範學院, 2014
朱枝富,「《貨殖列傳》"疑難雜錄"考辨新論[J]」,『渭南師範學院學報』31(17), 渭南師範學院, 2016

A Philological Study of the Commentaries on *Shiji Huozhiliezhuan* from the Late Chosŏn Dynasty

Ahn, Dae-hoe

This paper uncovered and analyzed commentaries on *Shiji Huozhiliezhuan* that were written by scholars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This paper newly presented and examined two volumes -*Hwasikjeonjuhae* and *Gogeumjipjushingyohwasikjeon*- to discover the following findings.

There are several commentaries on *Huozhiliezhuan*, which was published as a single volume after the eighteenth century. Among such commentaries, *Hwasikjeonjuhae*, a part of *Gyeongsajuhae*, and *Gogeumjipjushingyohwasikjeon*, which was a book compiled by Jeong Yang-heum, were published and transcribed many times. Other notable commentaries included a book written by a scholar who used Haneum as his penname, the first edition of *Sagiseonchanju*, written by Kim Yi-gyo and Hong Seok-ju under King Jeongjo's order in 1796, and a revised compilation of multiple commentaries completed by Jeong Yakyong in 1798.

The two commentaries examined in this paper dramatically differed from the other popular commentaries in their content and characteristics. The two commentaries examined the text rhetorically by separating the paragraphs and added original footnotes by focusing on the narrative structures, connotations, and context of the sentences. While there were references to the popular Sanjiazhu and *Shijipinglin* in the books, the two commentaries also included original annotations and new interpretations. The two commentaries stand out in the history of commentaries on *Huozhiliezhuan* as companions that contributed to a more accurate and fascinating understanding of *Huozhiliezhuan*.

Key Words : Hwasikjeon(貨殖傳), *Gyeongsajuhae*(經史註解), *Gogeumjipjushingyohwasikjeon*(古今集註新校貨殖傳), Jeong Yang-heum, *Sagiseonchanju*(史記選纂注), *Shiji*(史記)